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 행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박선정¹ · 강경아² · 김신정³

¹삼육대학교 대학원, ²삼육대학교 간호학과, ³한림대학교 간호학부

Types of Child Rearing Behavior of Parents during Early Childhood: Q-Methodological Approach

Park, Sun-Jung¹ · Kang, Kyung-Ah² · Kim, Shin-Jeong³

¹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Seoul

²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Seoul

³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hunch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wareness of child rearing among parent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parent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child rearing type. **Methods:** Q-methodology which provides a method of analyzing the subjectivity of each item was used. Forty Q items which were derived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nurturing mothers were classified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9-point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QUANAL PC Program. **Results:** Four types of parents' child rearing were identified. Type I was named 'affection-respect type', type II, 'concern-rule compliant type', type III, 'solicitude-model type', and type IV, 'geniality-encouragement type'. **Conclusion:** For proper growth and development during early childhood, parents should have rational information and awareness of their child rearing typ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ssential data to develop child rearing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Key words: Early childhood, Parents, Child rear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아동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Park, 2001). 아동은 출생 후 영·유아기 동안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양육과 보호 속에서 자라면서 언어, 생활 습관, 가치관 등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는 등의 일차적 기능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신체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을 준비해 주는 영구적인 과업을 위임받고 있다. 미래 사회

의 주역이 될 아동의 성장 발달은 출생전의 생물학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부모 혹은 조모 등의 양육 환경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Oh, 2000, 2006).

영·유아기는 인성, 사회성, 인지능력과 같은 모든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부모가 이 시기에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 이후 자녀의 성격 및 인지 능력, 사회 적응력 등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며 급속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요구에 대한 표현이 보다 다양하고 뚜렷해지면서 어머니의 반응에 거부, 반항하는 능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Laible, 2000). 영·유아기 시기의 발달적 측면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이 시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주요어: 영유아, 부모, 자녀양육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hin-Jeong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Okchun-dong, Chunchon 200-702, Korea

Tel: +82-33-248-2721 Fax: +82-33-248-2734 E-mail: ks@hallym.ac.kr

투고일: 2013년 2월 26일 심사위원회일: 2013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3일

근거한 적절한 목표와 기대를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양육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Yang & Kim, 2012). 또한, 양육 행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따라서, 아동의 주요 지지체계로서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는 영·유아의 발달 시기동안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책임이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기능한다(Igoe & Giordano, 1992). Duffy (1986)도 영·유아기에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가 제공하는 올바른 양육 행위는 이후의 아동기에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태도나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침이 된다고 하였다.

핵가족화의 보편화로 젊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 역할을 모델링함으로써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던 과거와 달리, 요즘 영·유아기 부모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인 지식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Cho, & Jung, 2007). 따라서, 영·유아기 부모들이 양육에 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올바른 양육 행위를 하도록 돕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며, 성장발달과 건강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부모들의 구체적인 양육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영·유아의 양육 행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왔다. 양육 행위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양육 행위와 관련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취업유무, 사회적지지, 결혼만족도, 아동의 특성, 발달간의 관계를 다룬 것이 대부분(Han, 2010; Han, Yi, Sim, & Choi, 2005; Hyun, 2007; Oh, 2006; Yune & Oh, 2010)이며, 이 연구 결과들은 기존에 외국에서 개발된 양육 태도,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의사소통 측정도구를 적용한 연구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로는 부모역할 중요도에 대한 인식(Kwon, Bang, Kim, & Ahn, 2006), 건강증진 행위 측정도구 개발 및 도구를 적용한 반복연구(Bang, Kwon, Choi, Huh, & Chung, 2012; Kim, Kang, Yun, & Kwon, 2007)가 진행되었을 뿐 최근 영·유아기 부모의 변화된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영·유아에서 바람직한 양육 행위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 행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실제적인 자료가 된다.

Q 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성의 구조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속성을 유형화할 수 있고,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 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관점을 중요시하는(Kim, 2008)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양육 행위 유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양육 방식과 유형에 따라 바람직한 양육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알아보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통해 양육 행위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에 대한 양육 행위의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양육 행위를 이해하며, 이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실무 적용에 지침으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양육 행위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한다.

둘째, 영·유아 양육 행위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 인식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 행위에 대한 주관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Q 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하였다.

2. 표집 방법

1) Q 모집단 및 Q 표본의 선정

일차적으로 문헌을 통하여 영·유아 부모의 양육 행위에 관한 Q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양육 행위와 관련된 학술지, 전문잡지, 서적과 신문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양육 행위와 관련된 신술문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352개의 Q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또한, 보다 실제적인 양육 행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소아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3명과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6명과 아버지 3명, 할머니 3명, 보육교사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영·유아의 최적의 성장발달을 위해 하

고 있는 양육 행위는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해야 할 양육 행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었다. 심층면담은 양육 행위에 대한 응답 내용이 유사한 진술문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된 진술문은 120개이었으며 위 두 단계 과정을 거쳐 총 472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고 간호학 교수 2인과 대학원생 1인과의 심층토의를 통한 수정 및 진술문 재 추출 과정을 통해 총 429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을 위해서는 양육 행위에 관한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 진술들을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14개의 하위범주에서 '감성적, 권위적, 독립적, 자유방임적, 과잉보호적 양육 유형' 5개로 범주화 되었으며 각 범주에 속한 진술문은 최소 19개에서 최대 112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범주화 과정은 Q 방법 연구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Q 표본은 40문항이었다(Table 4).

2) P 표본 선정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으로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연구이다. 이는 P 표본의 수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P 표본이 커지면 한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 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을 따르게 된다(Kim, 2008). 본 연구에서의 P 표본의 선정기준은 출생 시 만삭아로서 신장과 체중이 정상 범주 내에 있고 기형이나 건강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만성질환이 없고 정상적인 성장, 발달 상태에 있는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료 수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의 보장, 설문 및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을 위해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012042)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3) Q 표본 분류 및 자료 분석 방법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Q 표본으로 선정된 40개의 진술문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찬성하는 항목에서부터 가장 반대하는 문항의 9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Q 분류를 위해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의 주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주어진 Q 카드를 대상자의 견해에 따라 찬성(+), 중립(0), 반대(-)의 3그룹으로 나누게 하여 찬성하는 진술문은 오른쪽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인 것은 중간에, 그리고 반대하는 진술문은 왼쪽에 분류하도록 하였

다(Dennis, 1986). 찬성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가장 긍정(동의함), 그 다음 긍정의 순으로 Q 진술문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다음은 반대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가장 부정(동의하지 않음), 그 다음 부정의 순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립 의견에 나머지 진술문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때 Q 요인 해석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하기 위하여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 중 각각 2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면담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QUANAL Program을 이용하였고 Q 요인분석은 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위해 아이겐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총 설명변량 등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된 4개의 유형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1. Q 유형의 형성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행위 유형에 대한 주관성을 Q 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이 추출되었다. 이 4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57%를 설명하고 있었고 각 유형별로는 제 1유형이 39%, 제 2유형이 9%, 제 3유형이 4%, 제 4유형이 3%의 설명력을 보였다(Table 1).

또한, 3개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 유형의 상관관계 $r = \pm .27-.40$ 로 중간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Table 1.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N=40)

Variabl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Eigen value	15.85	3.76	1.78	1.50
Variance (%)	0.39	0.09	0.04	0.03
Cumulative variance	0.39	0.49	0.53	0.57

Type I = Affection-respect type; Type II = Concern-rule compliant type; Type III = Solicitude-model type; Type IV = Geniality-encouragement type.

Table 2. Correlation Matrix between Types (N=40)

Variabl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r	r	r	r
Type I	1.00			
Type II	.40	1.00		
Type III	.31	.27	1.00	
Type IV	.27	.36	-.39	1.00

Type I = Affection-respect type; Type II = Concern-rule compliant type; Type III = Solicitude-model type; Type IV = Geniality-encouragement type.

2. 유형별 특성

연구 대상자의 구성은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20명, 제 2유형이 12명, 제 3유형은 3명, 제 4유형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요인적재량(factor weight)은 Table 3과 같다. 각 유형 내에서 요인적재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대상자로 해당유형을 대표함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자가 한 요인에서 높은 적재치(0.8 이상)를 가질 경우, 그 대상자는 Q-factor를 대표하므로 Q 유형 분류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의견, 인구학적 정보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im, 1990)는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의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 행위 유형분류에 반영하였다. 또한, 가장 최적의 유형분류를 위해 2-5개까지의 요인을 지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이 각 유형별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각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유형은 4개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4).

부모의 양육 행위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40개 진술문 중 강한 긍정을 보이는 항목(Z score +1 이상)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항목(Z score -1 이하)을 중심으로 특성을 해석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은 개별 진술문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가 다른 유형의 표준점수와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문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기준에 의해 확인된 양육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제 1유형: 자애-존중형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40명 중 20명으로, 평균 연령은 30.9세이며 자녀의 평균 나이는 20.2개월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N=40)

Type	No.	Factor weight	Age (year)	Religion	Job	Children's age (month)	Children's gender
Type I (n=20)	1	0.67	30	Protestant	No	7	Male
	3	0.26	36	None	Yes	24	Male
	4	0.33	34	None	Yes	34	Male
	5	0.57	39	Buddhist	Yes	40	Male
	7	0.61	33	Protestant	No	42	Male
	8	1.12	28	Buddhist	Yes	8	Female
	10	0.23	34	None	Yes	16	Female
	11	0.56	34	None	Yes	14	Male
	15	0.78	42	None	Yes	60	Male
	17	0.43	36	Protestant	Yes	70	Female
	19	0.48	33	Catholic	Yes	10	Female
	20	0.46	42	None	Yes	52	Male
	23	0.20	29	None	Yes	6	Female
	24	0.11	24	None	No	5	Male
	29	0.42	31	None	Yes	24	Female
	32	0.38	27	None	No	16	Male
	33	0.33	25	None	No	3	Male
	34	0.44	35	None	Yes	13	Male
	35	0.42	27	None	No	7	Male
	40	1.78	32	None	Yes	16	Male
Type II (n=12)	2	0.71	28	None	Yes	14	Female
	12	0.44	35	None	Yes	6	Male
	14	0.30	33	Protestant	Yes	30	Female
	21	1.07	31	Buddhist	Yes	42	Male
	25	0.24	28	None	Yes	11	Female
	26	0.64	32	Protestant	Yes	22	Male
	27	0.23	35	Protestant	Yes	72	Female
	30	0.93	33	Protestant	No	41	Female
	31	0.58	26	Protestant	Yes	8	Female
	36	0.78	28	None	Yes	14	Female
	37	0.96	30	Protestant	Yes	30	Male
	39	0.34	32	None	No	9	Male
Type III (n=3)	16	0.29	33	None	Yes	26	Female
	18	0.38	32	Protestant	Yes	15	Male
	22	0.80	34	None	Yes	48	Male
Type IV (n=5)	6	0.58	38	Buddhist	Yes	4	Female
	9	0.29	32	Buddhist	Yes	11	Male
	13	0.74	28	Protestant	Yes	2	Female
	28	0.36	30	None	Yes	7	Male
	38	0.17	35	None	Yes	32	Male

Type I = Affection-respect type; Type II = Concern-rule compliant type; Type III = Solicitude-model type; Type IV = Geniality-encouragement type.

Table 4. Q-Statements on Z-Scores according to Types

(N=40)

Q - Statement	Type I (n=20)	Type II (n=12)	Type III (n=3)	Type IV (n=5)
	Z - score			
Q1. Try to make children feel happy and joyful.	1.68	1.42	2.01	0.79
Q2. Compliment them frequently.	1.78	1.46	1.66	-1.15
Q3. Try to say "I love you" more often.	1.77	1.21	0.81	-0.53
Q4. Hug them and do skinship often.	1.47	1.11	0.21	-1.45
Q5. Try to spend as much time as you can with your children.	1.19	1.14	1.12	0.48
Q6. Try to provide a good environment that can be beneficial to your child's development.	1.05	0.26	1.32	-0.92
Q7. Teach them good living habits.	1.06	0.72	1.11	-0.91
Q8. Try to feed them nutritious meals according to their age.	1.06	-0.22	1.01	-0.40
Q9. Prepare opportunities for them to exercise and have outdoor activities.	0.97	0.29	-0.78	0.36
Q10.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related to nurturing children.	0.83	-0.92	-0.91	0.29
Q11. Help them whenever they need it.	0.90	-1.20	0.49	0.23
Q12. Show concern to the child right away when they are sick.	0.90	0.40	-1.14	1.71
Q13. Try to show them a good example as a parent.	0.78	0.34	0.08	0.98
Q14. Show attention to the child's interest.	0.65	-0.64	-0.05	0.25
Q15. Try to describe and explain in detail whenever they have questions.	0.43	-0.34	0.30	0.20
Q16. Have as many field experience study as you can to give them variety of opportunities to learn.	0.51	-0.33	0.52	0.20
Q17. Encourage them and give them strength when they are going through hardships.	0.29	0.13	-1.21	1.96
Q18. Respect child's opinion.	0.21	-0.10	-1.38	0.63
Q19. React positively to your children's behavior.	0.02	-0.53	-1.16	1.26
Q20. Treat them with love and kindness.	0.06	0.29	-0.56	0.24
Q21. Make them obey the rules that parents have set for them.	-0.20	-1.75	-1.89	0.51
Q22. Explain the reasons when you refuse the child's demand.	-0.50	0.00	-0.98	1.64
Q23. Rebuke your children about wrong behavior.	-0.26	-0.70	-0.76	0.65
Q24. Punish them when it is needed.	-0.85	-1.94	-0.09	-0.69
Q25. Scold the child about behavior.	-1.11	-1.61	0.09	-1.17
Q26. Keep promises with your children.	-0.39	1.11	0.14	0.76
Q27. Just watch and don't point out mistakes that your child makes.	-1.35	-1.75	0.62	-2.25
Q28. Do whatever your child wants.	-1.44	-1.40	1.09	-1.25
Q29. Allow your child to behave as they like.	-1.49	-0.96	-1.34	-1.55
Q30. Ignore child's demand.	-1.18	-1.05	-0.82	-1.12
Q31. Feel relieved only when you keep them by your side.	-1.06	-0.43	0.18	-1.24
Q32. Force your child to always be better than other kids in everything.	-1.37	-1.19	0.65	-1.41
Q33. Make children do their own work by themselves.	-0.97	1.21	0.37	0.39
Q34. Teach them to always do their best.	-0.94	0.69	0.55	-0.40
Q35. Teach them to feel responsible with the things that they have done.	-1.12	1.21	1.02	0.16
Q36. Encourage them to yield and help others.	-0.73	1.06	-2.60	1.10
Q37. Let them make many friends.	-1.04	0.68	-1.25	1.66
Q38. Pay attention to your child's health, and have regular checkups and get vaccinations.	-0.67	0.67	-0.21	0.44
Q39. Teach them to have control over their emotions.	-1.08	0.14	-0.04	-0.69
Q40. Teach them manners and teach them to be polite.	-0.30	1.52	0.79	-0.09

Type I = Affection-respect type; Type II = Concern-rule compliant type; Type III = Solicitude-model type; Type IV = Geniality-encouragement type.

가 15명 직업이 없는 경우가 5명이었고, 대상자 자녀의 건강상태는 건강하였으며 남아가 14명 여아가 6명이었다. 제 1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칭찬을 자주 해준다($Z=1.78$)',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애정표현을 자주 한다($Z=1.77$)'이었다. 반면, 제 1유형이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한다($Z=-1.49$)', '아이가 해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한다($Z=-1.44$)'이었다. 또한,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표준 점수 차이가 +1.00 이상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애정표현을 자주 한다($Z=1.77$)', '자녀를 자주 껴안고 스킨십을 한다($Z=1.47$)'이었고,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가 해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한다',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의 순이었다.

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78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40번은 32세로 자녀는 16개월의 남아로 건강한 상태였다. 40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의 모든 것을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신경을 쓰려면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만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감정을 절제하도록 가르친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감정을 절제하다보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고 주장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0번 대상자는 자녀 양육을 할 때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어 제 1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요인적재량 1.12를 보인 8번 대상자는 28세의 직업이 있는 어머니로 8개월 된 건강한 남아를 돌보고 있었다.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녀가 요구한 것을 거절 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은 어머니가 무조건 원하는 것을 해주지도 않아야 하며 안 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미래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제 1유형은 아동을 돌보는데 어머니가 칭찬과 애정 어린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를 어려서부터 존중하는 것을 자녀양육의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제1유형을 자애-존중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자애(自愛)란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으로 자애라는 단어에는 '깊은 정', '어진사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존중(尊重)이란 '높이 귀중하게 대함'이라는 뜻을 의미하므로(Minjung Publishing Co.,

2000). 1 유형의 특성에 적합한 명명이라고 생각한다.

2) 제 2 유형: 관심-준수형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40명 중 12명으로, 평균 연령은 31세이며 자녀의 평균 나이는 23.9개월이었고, 직업이 있는 경우가 10명, 직업이 없는 경우가 2명이었다. 자녀의 신체상태는 건강하였으며 남아가 5명 여아가 7명이었다. 제 2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예의바르고 공손하도록 가르친다($Z=1.52$)', '칭찬을 자주 해준다($Z=1.46$)'이었다. 반면, 제 2유형이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필요할 때는 자녀를 때리기도 한다($Z=-1.94$)',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Z=-1.75$)'이었다. 또한,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표준 점수 차이가 +1.00 이상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예의바르고 공손하도록 가르친다($Z=1.52$)', '아이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도록 한다($Z=1.21$)'이었고,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필요할 때는 자녀를 때리기도 한다($Z=-1.93$)', '아이의 행동에 대해 잔소리와 간섭을 한다($Z=-1.61$)'이었다.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07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21번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31세 어머니로 건강한 42개월 남아를 두었다. 21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한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아기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며 아기의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생활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필요할 때는 자녀를 때리기도 한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엄마가 무지하여 아이를 때리는 거죠,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해주어야죠"라고 진술하였다. 즉, 21번 대상자는 나름대로의 양육에 대한 책임과 준수를 중요하게 지각하며 이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2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높은 요인적재량 0.96을 보인 37번 대상자는 30세로 직업이 있었으며 18개월 된 건강한 남아를 돌보고 있었다.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감정을 절제하도록 가르친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아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감정 절제가 필요해요. 그냥 놔두면 아이 생활이기는 해도 엉망이 돼요", "아이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너무 버릇이 없어지고 위험스럽다"라고 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 잔소리(간섭)를 하지 않는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아기 생활에 규칙을 정해주면 잔소리나 간섭이 필요 없죠.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길러져야 건강해질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

위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제 2유형의 어머니들은 제 1유형과 비교하여 자녀가 올바른 성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생활습관과 영·유아기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를 돌보는데 규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유아기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성을 지닌 대상자들로 판단되어 제 2유형을 관심-준수형으로 명명하였다. 관심(關心)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뜻하며, 준수(遵守)란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Minjung Publishing Co., 2000). 자녀가 어려서부터 건강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2유형 대상자의 성향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3) 제 3 유형: 배려-모범형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40명 중 3명으로, 평균 연령은 33세이며 자녀의 평균 나이는 29.6개월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상자 자녀는 건강하였고 남아가 2명, 여아가 1명이었다. 제 3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를 기쁘고 즐겁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Z=2.01$)', '칭찬을 자주 해준다($Z=1.66$)', '아이의 발달에 유익하도록 좋은 환경(연령에 적합한 장난감, 책 등)을 마련해준다($Z=1.32$)'이었다. 반면, 제 3유형이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양보하고 남을 돕도록 격려한다($Z=-2.60$)', '아에게 부모가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Z=-1.89$)'이었다.

제 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0.80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22번은 직업이 있는 34세 어머니로 48개월 된 건강한 남아를 두었다. 22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부모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한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특별히 잘 돌보았다고보다는 항상 모범을 보이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기에게 전달되어 아기가 잘 크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아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한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가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망가지게 되고 클수록 버릇이 없게 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22번 대상자는 양육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을 중요하게 지각하며 이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3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 3유형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요인적재량 0.38를 보인 18번 대상자는 직업이 있는 32세 어머니로 15개월 된 건강한 남아를 돌보고 있었다.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녀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고 격려해준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녀에게 늘 지지해주며 격려해 줄 때 아이는 즐거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아이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므로 건강과 행복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는 적당한 간섭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제 3유형의 어머니들은 제 2유형이 건강한 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을 중요시한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녀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중심으로 양육하였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3유형의 양육 행위 특성을 바탕으로 배려-모범형으로 명명하였다. 배려(配慮)란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이며, 모범(模範)은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의 뜻을 지니고 있어(Minjung Publishing Co., 2000), 제 3유형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4) 제 4 유형: 온정-격려형

제 4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40명 중 5명으로, 평균 연령은 32.6세이며 자녀의 평균 나이는 11.2개월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는 건강하고 남아가 3명, 여아가 2명이었다. 제 4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녀가 힘들 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준다($Z=1.96$)', '아이가 아플 때 즉시 신경을 쓴다($Z=1.71$)'이었다. 반면, 제 4유형이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Z=-2.25$)', '아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한다($Z=-1.55$)'이었다.

제 4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0.74를 나타낸 연구 대상자 13번은 28세의 2개월 된 남아를 둔 어머니이었다. 13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녀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한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를 늘 따뜻하게 대해야 아기가 잘 커요. 늘 화도 안내고 부드럽게 대하죠 그래서 그런지 조카들도 늘 잘 좋아하고 따르죠"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아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한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 많은 법칙을 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려면 힘들겠죠. 스트레스라는데... 그렇다고 아이를 내버려 두면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죠"라고 진술하였다. 즉, 13번 대상자는 양육에 대해 온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중요하게 지각하며 이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 4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높은 요인적재량 0.58을 보인 6번 대상자는 38세로 직업이 있었으며 4개월 된 건강한 여아의 어머니였다.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를 기쁘고 즐

겁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데 특별히 잘 돌보았다기보다 항상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즐겁게 해주려고 한다. 그것이 아기에게 전달되어 잘 크는 것 같다. 육체적으로 잘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라고 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내 자녀가 남의 아이보다 무엇이건 잘 하도록 지시, 감독한다'이었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아기마다 모든 것이 다른데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무조건 남보다 잘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으며 개인은 특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존중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위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제 4유형의 어머니들은 양육 행동에 대해 자녀의 행동에 대해 우선적인 지지와 격려를 하며 보다 사회적으로도 원만한 성향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하였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올바른 훈육을 하지만 어머니의 관여와 제재정도가 매우 포용적이며 관대하고 적극적이면서도 민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 4유형을 '온정-격려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온정(溫情)은 '따뜻한 사랑이나 인정'을 뜻하며, 격려(激勵)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줌'의 사전적 정의를 가지므로(Minjung Publishing Co., 2000), 4 유형 대상자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3. 유형간 일치항목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최근의 한국 영·유아기 부모의 자녀 양육 행위 유형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각 유형에 해당되는 뚜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네 가지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표준점수(Z-score)가 ± 1.00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의 또는 반대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Table 5). 부모들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Z 점수가 1.0에 가까운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Z=0.98$)'이었다.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한다($Z=-1.34$)',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Z=-1.04$)'의 순이었다.

즉, 최근 한국의 영·유아기 부모의 공통적 견해는 자녀와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자녀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 및 존중하면서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해 일정한 규칙과 절제로 양육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논 의

자녀의 바람직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은 부모의 양육 행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Koh, 2010).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 영·유아기 부모의 자녀 양육 행위 유형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여 한국 영·유아기 부모의 자녀 양육 행위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최근 우리나라 영·유아기 부모의 자녀 양육 행위는 4가지 유형으로 자애-존중형, 관심-준수형, 배려-모범형, 온정-격려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1유형은 '자애-존중형'이었다. 제 1유형은 자녀의 양육에 일정한 감독과 절제가 있으면서도 자유스러우며 감성적인 정서 교류를 중시하며 영·유아 개인의 감정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양육 행위의 모델을 외부의 수칙보다는 양육자 자신의 주관과 신념에 두어 소신을 강조하며 사랑과 애정이 뒷받침된 정서교류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양육 행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Moon과 Han (2002)은 애정적, 감성적, 수용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경우 주의 집중문제, 공격성, 외현화 행동 문제, 혼합 행동 문제에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Hwang (2003)은 부모가 칭찬이나 이해로 청소년을 대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아존중감이 증가되며 삶의 의미와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Kim과 Doh (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민감하고 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고 자율성을 격려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양육 행동을 보일 때 아동은 보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더욱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과 지적 발달 및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의 사랑과 온정적인 양육을 받으면 자

Table 5.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s

(N=40)

Q-statement	Z-score
Q5 Try to spend as much time as you can with your children.	0.98
Q13 Try to show them a good example as a parent.	0.54
Q16 Have as many field experience study as you can to give them variety of opportunities to learn.	0.22
Q20 Treat them with love and kindness.	0.01
Q15 Try to describe and explain in detail whenever they have questions.	-0.02
Q30 Ignore child's demand.	-1.04
Q29 Allow your child to behave as they like.	-1.34

존감이 높아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신건강의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부모가 애정 어린 태도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동이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Oh, 2000, 2006).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양육 방법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양육 행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 1유형의 경우 양육자와 자녀의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랑에만 치우쳐 부정적인 양육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제 2유형은 '관심-준수형'으로 자녀를 예의바르고 공손하게 양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규칙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야 올바른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수칙을 정해 이를 강조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아기의 건강과 올바른 인성에 관심이 많아 아기의 건강과 관련된 양육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규칙이나 예의 등을 가르치는 양육 행동은 자녀의 발달 연령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규칙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Clark & Ladd, 2000). Park과 Rhee (2001)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행동에 적절한 한계와 규칙을 정해주며 지도하는 부모의 양육 행위는 유아의 책임감, 독립심, 주도성을 길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차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가치관의 변화로 소자녀를 지향함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양육 행위는 자녀의 행동 및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육자가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늘리며 양육 행위에 규칙의 준수를 강조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 3유형은 '배려-모범형'으로 양육자 자신의 견해, 관점, 의지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고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게 될 경우, 올바른 양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를 제 2유형과 비교해 볼 때 규칙 준수가 중요시 되지 않는 반면, 양육자의 태도가 자유스러우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면을 볼 수 있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양육자 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녀는 모델이 되는 부모를 통해 본인의 역할을 중시하며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Wake, Nicholson, Hardy와 Smith (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일 경우 모범적이며 허용적인 양육 태도에 비해 취학 전 자녀의 비만위험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민주적이며 모범적인 아동들은 저체중의 위험

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육자의 양육 행위가 평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3유형에 속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는 양육 유형에 대해 부모의 모범 행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양육 행위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하며, 양육 행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4유형은 '온정-격려형'으로 민주적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녀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자녀에게 형성되어지는 성장 발달 특성은 양육자의 안정적이며 허용적인 면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양육자의 양육 특성이 긍정적이며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사회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모 자녀관계가 자율적일수록 바람직한 양육 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Hyun (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녀를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율적, 애정적, 허용적으로 지각할 때 아동은 문제 중심, 지지추구 등의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Han et al., 2005). 라틴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Arredondo 등(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행동과 비만위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양육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며 지속적으로 양육 행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격려하면서 양육 행위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유형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양육 행위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양육자와 자녀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녀에게 자율을 허용하게 되고 양육 행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유형의 양육자는 양육 행위를 본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를 수 있으므로 올바른 양육 행위를 위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신체, 심리, 사회적 성장발달 특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 1, 2, 3, 4유형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 또는 반대한 진술문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동의한 항목의 특성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 '부모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한다', '다양한 학습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체험을 많이 한다'이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강한 부정을 보인 항목은 '아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한다', '아이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이었다. 우리나라의 영아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모역할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연

구 결과에서는 부모역할 중요도 인식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이 '아기가 잘못을 하여도 적대감이나 성가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장난감을 사줄 때 부모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난감을 구입한다'로 파악되어(Kwon et al., 2006), 본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동의 또는 반대한 진술문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양육 유형이 '자애-존중형', '관심-준수형', '배려-모범형', '온정-격려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영·유아기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자녀의 요구, 양육과 교육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부모역할을 매우 성실히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자녀가 보다 절제되고 규칙이 있는 생활을 하며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자녀의 양육 행위에 대한 태도 유형 중 제 1유형 '자애-존중형', 제 3유형 '배려-모범형', 제 4유형 '온정-격려형'이 양육 행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강하여 질서, 규칙,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 2유형 '관심-준수형'은 자율과 관련된 양육 행위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규칙 준수에 관한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양육 행위에 대한 진술문과 유형별 특성은 양육 행위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맞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파악된 양육 행위 유형은 기존의 양육 행위 측정도구의 하부영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유아 부모의 양육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및 양육 행위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양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수행되어야겠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기 부모의 자녀 양육 유형에 대한 주관적인 구조와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양육 행위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개방형 질문을 통한 심층면담 및 문헌 고찰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최종적으로 40개의 Q 문항을 추출하였고, 이를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40명에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Q 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두 네 개의 유형(자애-존중형, 관심-준수형, 배려-모범형, 온정-격려형)이 추출되었다.

제 1유형은 '자애-존중형'으로 양육 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양육자의 감성과 감정에 공감하며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아주는 것

과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제 2유형은 '관심-준수형'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가 건강한 생활습관과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양육 행위라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 3유형은 '배려-모범형'으로 자녀가 성장할 때 양육자의 모범적인 행동과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제 4유형은 '온정-격려형'으로 엄격성이 없고 통제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녀 양육을 고려하는 면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영·유아기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 행위는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유형별로 적합한 아동 양육 행위를 위한 교육이 차별화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 행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유형별 양육 행위에 따라 차별화된 영·유아 양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파악된 양육 행위 유형을 기초로 하여 양육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rredondo, E. M., Elder, J. P., Ayala, G. X., Campbell, N., Baquero, B., & Duerksen, S. (2006). Is parenting style related to children's healthy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in Latino famil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21(6), 862-871. <http://dx.doi.org/10.1093/her/cyl110>
- Bang, K. S., Kwon, M. K., Choi, M. Y., Huh, B. Y., & Chung, S. J. (2012).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mothers of children in this age group and graduate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8(2), 60-67. <http://dx.doi.org/10.4094/jkachn.2012.18.2.60>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 Dennis, K. E. (1986). Q methodology: Relevance and application to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6-17.
- Duffy, M. E. (1986). Primary prevention behaviors: The female-headed, one-parent family.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9(2), 115-122.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7(3), 207-215.
- Han, J. A. (2010).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mothers'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mothers' low income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4(3), 355-384.
- Han, K. J., Yi, Y. H., Sim, I. O., & Choi, Y. J. (2005). Dimensions and attri-

- butes of quality of life in Korea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1(2), 167-178.
- Hwang, Y. S. (2003).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the home & school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Hyun, J. H. (2007). A review on the recent trends in the parent-child relation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7(1), 95-110.
- Igoe, J. B., & Giordano, B. P. (1992).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Secrets of success. *Pediatric Nursing*, 18(1), 61-62, 66.
- Kim, H. K. (1990). *Understanding &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Seoul: Mass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 Kim, H. K.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theories,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 Kim, H. M., & Doh, H. 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56(6), 279-298.
- Kim, S. J., Kang, K. A., Yun, J., & Kwon, O. J. (2007).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 todd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1), 21-32.
- Kim, Y. E., Cho, B. H., & Jung, M. J. (2007). Prevalence study of mothers' perception on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Comparison between years 2002 and 2007.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2), 68-85.
- Koh, M. S. (2010).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on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6(3), 195-202. <http://dx.doi.org/10.4094/jkachn.2010.16.3.195>
- Kwon, M., Bang, K., Kim, N., & Ahn, H. (2006).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parental role by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2), 170-179.
- Laible, D. J. (2000). *Parent-child conflict in the toddler years: Lessons in emotion, morality, and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Lincoln, NE.
- Minjung Publishing Co. (Ed.) (2000) *Minjung's essence Korean-English dictionary* (4th ed.). Seoul: Author.
- Moon, Y. S., & Han, J. S.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 caring behavior and child behavioral problem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5(2), 161-176.
- Oh, J. A. (2000). Concept analysis of the childcare. *Nursing Science*, 12(2), 26-36.
- Oh, J. A. (2006). Care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in employment mother's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3), 368-376.
- Park, J. H., & Rhee, U. H. (2001). Children's peer competence: Relationships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2(4), 1-15.
- Park, K. J. (2001). Q-sort description on maternal behaviors of one-year-old infa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137-149.
- Wake, M., Nicholson, J. M., Hardy, P., & Smith, K. (2007). Preschooler obesity and parenting styles of mothers and fathers: Australian national population study. *Pediatrics*, 120(6), e1520-e1527. <http://dx.doi.org/10.1542/peds.2006-3707>
- Yang, M. S., & Kim, Y. E. (2012). A study on the level of mother's parenting stres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3), 229-247.
- Yune, H. S., & Oh, K. J. (201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Focused on children's ag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673-689.